

위험의 통제가능성과 이점발견간의 관계 - 청소년집단을 중심으로*

서 미[†]

Seattle Pacific University

조 한 익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위험을 통한 성장이라고 개념 정리된 이점발견의 결정요인을 위험의 통제가능성과 관련하여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위험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지각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고통감 지각과 이점발견과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직면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통제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강인성, 희망과 이점발견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고통감이 높을수록 이점발견점수가 높고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 고통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점발견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을 경험한 집단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 강인성의 통제성과 투신성, 희망이 이점발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희망만이 이점발견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이나 교육장면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험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어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 이점발견, 청소년, 강인성, 희망, 스트레스 대처방식, 위험(불통제위험, 통제위험)

* 본 논문은 서미의 2007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서미, Seattle Pacific University(USA소재)에서 post-doctorate 연구과정중임.
4306 156th Ave NE, JJ332, Redmond, WA, 98052, USA
Tel : 1(425)638-9150, E-mail : miseo3@gmail.com

흔히 위협이나 역경은 적응을 방해하고 정신병리를 일으킨다고 보고된다(윤병수, 정봉교, 1999; 윤현희, 김명자, 1994). 특히 청소년의 경우 위협이나 역경은 비행, 공격적 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Bischof, Srith & Wilson, 1992; Dryfoos, 1990; Vuchinich, Bank & Patterson, 1992).

그렇다면 제거할 수 없는 역경이나 위협에 직면한 청소년들은 어쩔 수 없이 문제행동을 보이고 생활에 부적응할 수 밖에 없는가? 최근 긍정심리학의 탄력성 연구에서는 위협이 청소년 개인에게 동일하게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청소년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하였다(Garmezy, 1971; Rutter, 1979; Werner & Smith, 1982). 즉 동일한 위협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청소년 개인이 위협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대응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은 위협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유성경, 2000; Masten, 2001). 이에 더하여 Schaefer와 Moos(1992)는 위협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위협이 없었다면 도달할 수 없는 발달적 성취를 이룬다고 제안하였다. 즉 사람들은 역경을 통해 삶에 대해 보다 성숙한 태도를 지니게 되고, 유사한 문제를 지닌 타인에 대해 보다 깊은 수준의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되며 시각이 넓어지고 새로운 대처기술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협이나 역경을 경험함으로써 성숙하게 된다면 위협이나 역경은 오히려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위협이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협을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다(Linley & Joseph, 2004). 이와 같은 역경과 위협을 통한 성장에 관한 연구는 긍정심리학의 이점발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다(Affleck & Tennen, 1996).

이점발견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Affleck & Tennen, 1996). 즉, ‘의미발견(finding meaning)(Folkman, 1997; Janoff-Bulman & Frantz, 1997; Park & Folkman, 1997; Taylor, 1983)’, ‘긍정적 변화(positive change)(Collins, Taylor, & Skokan, 1990)’, ‘이점-구성(benefit-construal)이나,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Tedeschi & Calhoun, 1995)’이나 ‘스트레스 관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Park, Cohen, & Murch, 1996)’, ‘변화(thriving)(O’Leary & Ickovics, 1995)’로도 불리며 이들 간에는 개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Thorton(2002)은 이러한 다양한 개념과 용어로 인해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작업을 통합하고 가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개념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inley와 Joseph(2004)는 이들 용어를, ‘역경적 성장’(adversarial growth)으로 통일하고 역경에 맞서 얻은 긍정적인 변화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 이점발견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에는 역경에 맞선 긍정적인 변화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Linley와 Joseph(2004)가 정의했듯이 이점발견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역경이나 위협을 통해서 얻은 긍정적인 산물이며 역경 경험 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로써 정의하고자 한다. 단, 척도를 이점발견척도(PBS; perceived benefit finding)로 사용하였기에 명칭을 이점발견(benefit-finding)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협이나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점발견을 이루어 내는지를 밝

힘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떻게 위기를 통제 성장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최근 몇몇 탄력성 연구에서 위험이나 위기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짐을 제기하였다(박현선, 1998; 유성경, 심혜원, 20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성경과 심혜원(2002)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인 보호요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요인이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다(박현선, 1998; Garmezy, 1985; Rutter, 1979). 위험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호요인을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호요인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박현선, 1998). 위험에 따라서 보호요인의 효과가 달라진다면 위험에 따라서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달라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험이나 위기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위험이나 위기에 따라서 이점발견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위험이나 위기를 주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험의 특성과 이점발견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험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지각하는 것, 즉 통제감을 지각하는 것이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된다(Evers, Kraainmaat, Lankveld, Jongen, Jacobs, & Bijlsma, 2001; Tennen, Affleck, Urrows, Higgins, & Mendola, 1992).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구

체적 통제력에 대한 지각된 믿음이나 판단이다(Flammer, 1997). 지각된 통제감과 이점발견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위험에 직면해서 통제감을 지각할수록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vers et al., 2001; Park et al., 1996; Tennen et al., 1992). 이처럼 지각된 통제감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하다(Reed, Taylor, & Kemeny, 1993; Thompson, Sobolew-Shubin, Galtraith, Schwankovsky, & Cruzen, 1993).

이러한 지각된 통제감이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서 Thompson(1985)은 위험사건으로 인한 고통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리적 통제를 하고 이로 인해 이점발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통감과 통제감이 서로 관련되어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침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만약 고통감을 최소화하고 싶지만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심리적 통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며, 고통감을 많이 지각하게 될수록 더욱 좌절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추론해볼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적 통제는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며, 고통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통제하려는 노력이 강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점발견이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지각된 통제감에 따라서 고통감이 이점발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위험사건의 고통감과 이점발견의 관계가 제 3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Fontana & Rosenheck, 1998). 본 연구는 위험사건의 고통감과 이점발견과의 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각된 통제감이 라고 상정하고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위협에 대한 지각된 통제성이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협과 통제할 수 없는 위협에 따라 이점발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김택호와 김재환(2004)은 위협상황을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위험과 불통제위험으로 구분한 바 있다. 즉 불통제위험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신체장애를 입거나 부모나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 부모의 실직 및 이혼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통제 불가능한(uncontrollable) 유형의 위협사건이다. 통제위험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말썽을 일으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 혹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다투는 행위, 학교 규율 등을 자주 어겨 징계를 받는 행위등과 같이 본인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controllable) 유형의 위협사건이다. 이들은 특히 위협의 누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단일 시점이 아닌 몇 년 동안의 가족, 개인, 학교, 사회 영역에서의 위협 경험을 반영하여 위협척도를 개발하였다. 주로 누적위험 지수는 종종 삶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협의 수를 더하는데 이 척도는 위협사건에 대해 피험자의 경험 여부를 확인한 후, 경험자에 한해 그 심각성 정도를 응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탄력성 연구에서 초기 위협의 측정이 단일 지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Glantz & Johnson, 1999; Masten, Best, & Garnezy, 1990)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위협의 측정시 위협의 누적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Maston &

Wright, 1998).

본 연구는 직면한 위협이 통제할 수 있는 위협과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인지에 따라서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의 완충요인으로서 밝혀진(Bartone, Ursano, Wright, & Ingraham, 1989; Compas, Malcarne, & Rondacaro, 1988; Snyder, 1999) 스트레스 대처방식, 강인성, 희망이 통제위험과 불통제위험에 따라서 이점발견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자신이 가진 자원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는 상황(즉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이 보이는 적응행동의 과정, 문제해결 노력, 또는 인지적 활동으로 정의된다(Pearlin & Schooler, 1978). 이러한 대처방식은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정서중심 대처방식으로 구분된다.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인자를 변경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구적인 과제지향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인자가 수반하는 정서상태를 조절하려는 시도로 정의된다(Folkman & Lazarus, 1985; 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연구에서 문제중심 대처가 정서중심 대처보다 효과적인 심리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김교현, 전경구, 1993; 이은희, 2004; 최미경, 2003; Compas et al., 1988; Ebata & Moos, 1991; Forsythe & Compas, 1987; Kurdek & Sinclair, 1988; Terry, Tonge, & Callan, 1995; Wills, 1986).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중심 대처가 정서중심 대처보다 긍정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Aldwin & Revensin, 1987). 왜냐하면 몇몇 연구에서 문제 중심 대처가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정서중심 대처가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Baum, Fleming, & Singer, 1983; Pruchno & Resch, 1989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대처방식이 어떤 위협에 처했느냐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상황특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Forsythe와 Compas(1987)는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서 문제중심 대처를 할수록 우울과 같은 증상이 적고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제중심 대처를 할수록 우울과 같은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서 정서중심 대처를 할수록 우울과 같은 증상이 낮고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서는 정서중심 대처를 할수록 우울과 같은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개인이 위협적이거나 위협적인 환경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나 이러한 조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평가할 때는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Lazarus & Folkman, 1984; Mattlin, Wathington, & Kellser, 1990; Pearlin & Schooler, 1978). 이렇게 스트레스의 통제가능성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가 달라진다면 이점발견도 통제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협에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이점발견과 관련이 깊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Schaefer & Moos, 1992).

한편, 강인성이란 개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유기체의 악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처리하게 만드는 개인의 인성적 특성이다(민병배, 1990). 강인성은 투신성(commitment), 통제성(control), 도전성(challenge)으로 구성된다(Kobasa, 1979).

이러한 강인성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Kobasa(1979)는 특히 위협상황에서 강인성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강인성의 완충 효과는 이후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Bartone et al, 1989; Kobasa, Maddi, & Counington, 1981; Kobasa, Maddi, & Kahn, 1982; Rhodewalt & Zone, 1989).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강인성의 완충효과가 보고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Ganellen & Blancy, 1984; Hull, Van Treuren, & Vimelli, 1987). 이와 비슷하게 위험의 종류에 따른 강인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Schmier와 Lawler(1986)는 강인성이 생활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Tange와 Hommontree(1992)는 강인성과 경찰의 직무스트레스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직면한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서 강인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를 통해 위험의 통제가능성에 따라서 위험과 강인성과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건은 개인의 통제권 하에 있지만 직무상황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본인의 의지나 행동과는 관계없이 외부환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Snyder(1994)에 의하면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목표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최선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실패에 더 초점을 맞추며 목표에 대한 실패의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고 부정적인 정서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희망의 효과성과 관련해서 희망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희망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Snyder, 1999; Snyder, Cheavens, & Michael, 1999), 신체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Irving, Snyder, & Crowson, 1998; Snyder, 1996, 1998; Snyder, Irving, & Anderson, 1991). 또한 희망은 효과적인 인간관계와 관련이 깊다(Snyder, Hoza, Pelham, Rapoff, Ware, Danovskt, Highverger, Rubinstein, & Stahl, 1997).

이러한 희망의 효과성은 위협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택호와 김재환(2004)은 희망이 위협을 적게 경험한 집단보다 오히려 위협을 높게 경험한 집단에서 더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위협에서 적응을 잘하는 탄력적 청소년 집단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은 자존감, 효능감, 낙천성 등의 다른 보호요인 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희망이 위협상황에서 특히 불통제위험 상황에서도 다른 어떤 보호요인보다도 큰 영향력을 보일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은 통제할 수 있는 위협에 비해 노력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고통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위협을 더 높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nyder와 Pulvers(2001)에 따르면 낮은 희망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 대하여 극심한 걱정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높은 희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이 스트레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 내는 융통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근거한다면 희망은 스트레스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내는 융통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희망은 통제할 수 있는 위협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위협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처한 위협의 통제가능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강인성은 다르게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희망은 위협의 통제가능성에 상관없이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측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주로 어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라고 보고된다(김형선, 2001; 조학래, 1997). 특히 김형선(2001)은 적응수준의 차이가 나는 비행청소년이나 일반청소년이 모두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회피중심 대처가 적응에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측정은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로 구분한 Endler와 Parker(1990)의 스트레스 대처 모형을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위협에 직면해서 좌절하지 않고 성장하는지를 밝히고자 청소년들이 직면한 위협의 통제가능성에 따라서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이 위험상황에서 통제가능성을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점발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직면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인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인지에 따라서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통제할 수 있는 위험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의 구분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을 많이 경험한 집단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많이 경험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위험 상황 자체를 측정하기보다 위험을 경험한 집단의 비교를 통해 위험이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은 탄력성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물중심 접근방법이다. Masten(2001)은 이와 같은 인물중심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위험에서 긍정적인 적응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위험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높게 지각한 경우 고통감이 높을수록 이점발견의 정도가 높고, 위험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낮게 지각한 경우 고통감이 높을수록 이점발견 점수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1.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이점발견의 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가설 2-2. 통제위험 집단에서 강인성(투신성, 통제성, 도전성)과 이점발견은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고 불통제위험 집단에서 강인성(투신성, 통제성, 도전성)과 이점발견은 상관 이 없을 것이다.

가설 2-3.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 위험 모두에서 희망은 이점발견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 S시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이점발견 문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5명을 제외한 380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380명중 중학생이 252명(66.3%), 인문계 고등학생이 128명(33.7%)이었으며 남학생은 191명(50.3%), 여학생은 189명(49.7%)이었다.

측정도구

위험 척도

위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택호와 김재환(2004)의 위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스트레스사건이나 생활위험사건을 측정 한 척도를 참조하여 총 74문항을 선정하고 이 중 신뢰도가 떨어지는 24문항을 제외한 50문항을 최종적인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사회영역으로 구성된 척도를 통제가능성에 따라서 통제위험 사건(22문항)과 불통제위험 사건(28문항)으로 구분하였다. 불통제위험 사건이란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적은 사건으로, 통제위험 사건이란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변화 가능성이 많은 사건으로 개념정의를 내렸다. 이 개념에 근거하여 상담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 과정 학생 8명 중 5명 이상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하여 각 문항을 불통제 사건과 통제 사건으로 구분하였다.

김택호와 김재환(2004)은 이들 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며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개인위험이 $\alpha=.80$, 가족위험이 $\alpha=.85$, 학교위험이 $\alpha=.77$, 사회위험이 $\alpha=.83$ 이고 불통제위험은 $\alpha=.83$, 통제위험은 $\alpha=.89$ 였다.

문항의 측정방식은 각 문항을 읽고 지난 2년동안 각 사건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생각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다'에, 경험했다면 그 사건이 준 영향의 심각도를 생각하여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1), '보통정도 심각했다'(2), '매우 심각했다'(3)까지의 3점 리커트식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전체 신뢰도가 Cronbach's $\alpha=.93$ 이며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개인위험이 $\alpha=.78$, 가족위험이 $\alpha=.81$, 학교위험이 $\alpha=.68$, 사회위험이 $\alpha=.81$ 이고 불통제위험은 $\alpha=.73$, 통제위험은 $\alpha=.86$ 이었다.

이점발견(benefit-finding) 척도

본 연구는 McMillen과 Fisher(1998)가 개발한 이점발견 척도(PBS)를 김택호, 서미, 조한익(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측정은 먼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위기사건)' 세 가지를 적게 한 후 그 사건들에 대해 각 진술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5점 척도('0-전혀 나의 경험과 같지 않다'에서 '4-매우 많이 나의 경험과 같다'까지)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하위영역은 자기효능감의 증진(6문항), 지역사회와의 친밀감 증진(4문항), 영성의 증진(3문항),

타인에 대한 공감의 증진(4문항), 타인에 대한 신뢰감 증진(4문항), 생활양식의 변화(4문항), 가족과의 친밀감 증진(3문항), 물질적 이득(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택호 등(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8$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였다.

한편 위기사건의 '고통감 지각'과 '지각된 통제감'의 측정은 이점발견 측정시 기술한 세 가지 위기사건에 대한 지각된 고통감과 지각된 통제감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사건의 고통감 수준을 알아보고자 '위기사건에 대한 고통감 정도의 지각'을 5점 척도('1-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에서 '5-매우 많은 피해를 당했다')로 측정하였다. 또한 위기사건의 지각된 통제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위기사건에 대한 통제감 정도의 지각'을 5점 척도('1-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에서 '5-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Endler와 Parker(1990)가 개발하고 박용천, 김광일과 Noh Samuel(2000)이 번안한 스트레스 상황 대처검사 질문지로서 김형선(200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기질에 따라 문제중심 대처(16문항), 정서중심 대처(11문항), 회피중심 대처(11문항)의 3가지 하위척도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없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하였다. 김형선(2001)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고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alpha=.89$,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alpha=.83$,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alpha=.84$ 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이고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alpha=.92$,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alpha=.89$, 회피

중심 대처방식은 $a=.88$ 이었다.

강인성 척도

강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tone 등(1989)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조현영(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강인성 척도(Hardiness Scale; HS)는 기질적 탄력성, 즉 개인의 성격적 강인성을 측정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투신성, 통제성, 도전성이 포함된다. 투신성은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삶에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키는 것이고 통제성은 사건의 과정에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며 도전성은 안정보다는 차라리 변화가 인생에 있어서 더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강인성 척도는 총4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 ‘약간 그렇다(1점)’, ‘상당히 그렇다(2점)’, ‘전적으로 그렇다(3점)’로 측정되는 4점 척도이다. 강인성 전체점수는 역환산 문항을 역산한 후의 총 문항 점수들의 합계로 얻고 하위 척도들은 각 해당 문항들의 합계로 얻는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91$ 이며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투신성이 $a=.71$, 통제성이 $a=.71$, 도전성이 $a=.55$ 였다.

희망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강이영(2002)의 희망척도를 사용하여 주도사고 문항과 경로사고 문항의 총합으로 희망을 측정하였다. 경로사고란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융통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한 개인의 지각능력을 경로사고라고 한다. 또한 주도사고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각능력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시키는 믿음이나 확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 희망 척도는 총18 문항으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전체 신뢰도가 Cronbach's $a=.91$ 이며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주도사고가 $a=.90$, 경로사고가 $a=.88$ 이었다.

결 과

위험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이 이점발견에 미치는 영향

위험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에 따라 고통감이 이점발견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통제감 상하 두집단과 고통감 상하 두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때 집단 구분은 위기사건(이점발견 측정시 기술한 위기 사건)에 대한 통제감과 그 사건에 대한 고통감의 각각의 평균값(고통감의 평균-3.68, 통제감의 평균-2.90)을 기준으로 통제감 상하집단, 고통감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점발견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통제감 수준(2)과 고통감 수준(2)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점발견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수준과 고통감수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46$, $df=1/376$, $n.s.$; $F=.02$, $df=1/376$, $n.s.$). 반면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30$, $df=1/376$, $p<.05$). 즉 지각된 통제감이 높은 경우 고통감이 높을수록 이점발견의 점수가 높지만 지각된 통제감이

표 1. 지각된 통제감수준과 고통감수준에 따른 이점발견의 평균 (표준편차)

		고통감		계
		상	하	
지각된 통제감	상	47.41(22.91) n=139	41.27(24.80) n=111	44.68
	하	38.82(24.52) n=99	45.71(33.37) n=31	40.46
계		43.84	42.24	

표 2. 지각된 통제감수준과 고통감수준에 따른 이점발견의 변량분석결과 요약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통제감수준(A)	294.44	1	294.44	.46
고통감수준(B)	9.65	1	9.65	.02
A * B	2899.73	1	2899.73	4.57*
오차	238820.63	376	635.16	

주. * $p < .05$

낮은 집단은 고통감이 높을수록 이점발견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고통감이 클수록 더 많은 이점을 발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통제위험과 불통제위험에서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점발견과 희망, 강인성,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이점발견과 희망, 강인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점발견과 희망, 강인성의 하위요인인 투신성, 통제성, 도전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문제중심 대처, 정서

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와의 단순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면 이점발견과 희망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44, p < .01$). 이점발견과 강인성에서는 이점발견과 투신성, 이점발견과 통제성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r = .19, p < .01; r = .13, p < .05$) 이점발견과 도전성과는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6, n.s$). 이는 희망이 높을수록 이점발견의 점수가 높으며 투신성과 통제성이 높을수록 이점발견의 점수가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점발견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모든 하위요인(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r = .53, p < .01; r = .30, p < .01; r = .42, p < .01$) 문제중심 대처를 많

표 3. 이점발견과 희망, 강인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계수(*r*)

	1	2	3	4	5	6	7
1	1						
2	.44**	1					
3	.19**	.40**	1				
4	.13*	.43**	.73**	1			
5	-.06	.01	.23**	.22**	1		
6	.53**	.62**	.13*	.15**	-.17**	1	
7	.30**	.19**	-.21**	-.27**	-.12*	.52**	1
8	.42**	.34**	-.01	-.07	-.10	.52**	.40**

주. * $p < .05$, ** $p < .01$

1: 이점발견, 2: 희망, 3: 투신성, 4: 통제성, 5: 도전성(3, 4, 5는 강인성의 하위요인)

6: 문제중심대처, 7: 정서중심대처, 8: 회피중심대처(6, 7, 8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

이 사용할수록,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회피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점 발견을 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통제위험과 통제위험에 따른 이점발견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이점발견과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과의 관계가 불통제위험과 통제위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에서 이점발견과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통제위험 집단은 통제가능 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한 집단으로서 통제가능 위험사건을 비교적 심각하게 경험하고 불통제위험 사건을 비교적 덜 경험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불통제위험 집단은 불통제 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한

집단으로서 통제 불가능한 위험사건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통제위험 사건을 비교적 덜 경험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제위험 집단은, 통제위험 점수가 통제위험의 평균값인 15.78보다 상위수준이면서 불통제위험의 점수가 불통제위험의 평균값인 3.66보다 하위수준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불통제위험 집단은, 통제위험 점수가 통제위험의 평균값인 15.78보다 하위수준이면서 불통제위험의 점수가 불통제위험의 평균값인 3.66보다 상위수준인 집단이다. 집단을 구분한 후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 각각에서 이점발견과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과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위험 집단에서는 이점발견과 문제중심 대처($r = .44, p < .01$), 회피중심 대처($r = .48, p < .01$)와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서중심 대처($r = -.15, n.s$)와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표 4.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이점발견과의 상관계수(r)

		스트레스대처방식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
통제위험 집단(n=67)	이점발견	.44*	.05	.48*
불통제위험 집단(n=33)	이점발견	.32	.11	.17

주. * $p < .01$

편 불통제위험 집단에서는 이점발견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 = .32, n.s.$; $r = .11, n.s.$; $r = .17, n.s.$). 즉 통제위험 집단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점발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통제위험 집단보다는 통제위험 집단에서 문제중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가 이점발견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가 가져오는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에서 다른 두 대처방식의 영향을 통제한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가 이점발견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준부분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즉 정서중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의 영향을 통제한 문제중심 대처, 문제중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의 영향을 통제한 정서중심 대처,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의 영향을 통제한 회피중심 대처가 이점발견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위험 집단에서는, 다른 대처방식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문제중심 대처(정서중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의 효과를 배제), 회피중심 대처(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의 효과를 배제)는 이점발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고($r = .28, p < .001$; $r = .31, p < .001$) 정서중심 대처(문제중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의 효과를 배제)는 이점발견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3, p < .01$). 이는 다른 대처방식이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했을

표 5.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이점발견과의 준부분상관계수

		스트레스대처방식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
통제위험 집단(n=67)	이점발견	.28**	-.23*	.31**
불통제위험 집단(n=33)	이점발견	.28	-.08	0.7

주. * $p < .05$, ** $p < .01$

주. 준부분상관은 해당 대처방식 이외의 다른 대처방식의 효과를 배제하여 이점발견과의 상관을 낸 것임.

때 통제위험 집단에서 문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점발견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의 단순상관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반면 앞의 단순상관분석 결과와는 달리 문제중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가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였을 때 정서중심 대처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점발견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통제위험 집단에서는, 다른 대처방식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문제중심 대처(정서중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의 효과를 배제), 정서중심 대처(회피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의 효과를 배제), 회피중심 대처(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의 효과를 배제)는 이점발견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단순상관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위의 결과는 다른 대처방식이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였을 때 불통제위험 집단에 비해 통제위험 집단에서 문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가 이점발견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정서중심 대처는 이점발견과 부적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 위험집단에서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와 이점발견과의 관계는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위험과 불통제위험에 따른 이점발견과 희망, 강인성과의 관계

이점발견과 희망, 강인성(투신성, 통제성, 도전성)의 관계가 통제위험과 불통제위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에서 이점발견과 희망, 강인성(투신성, 통제성, 도전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의 구분은 앞서 통제위험가능성에 따른 집단구분과 동일하다.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 각각에서의 이점발견과 희망, 강인성(투신성 · 통제성 · 도전성)과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위험 집단에서는 이점발견과 희망($r=.47, p<.01$), 투신성($r=.30, p<.05$), 통제성($r=.25, p<.01$)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도전성과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불통제위험 집단에서는 이점발견과 희망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r=.39, p<.05$) 이점발견과 강인성(투신성 · 통제성 · 도전성)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통제위험 집단에서는 이점발견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희망뿐만 아니라 투신성과 통제성도 높은 반면 불통제위험 집단에서는 이점발견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희망만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제위험 집단에

표 6.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의 희망, 강인성과 이점발견과의 상관계수(r)

		희망	강인성		
			투신성	통제성	도전성
통제위험 집단(n=67)	이점발견	.47**	.30*	.25*	-.07
불통제위험 집단(n=33)	이점발견	.39*	-.29	-.15	-.21

주. * $p<.05$, ** $p<.01$

서는 이점발견에 희망, 투신성, 통제성이 영향을 미치지만 불통제위험 집단에서 희망만이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위협에 직면해서 좌절하기보다 위협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위협에 직면해서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협의 통제가능성에 따라서 위협을 통한 성장이라고 정의된 이점발견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위협에 대한 통제가능성 지각과 이점발견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위협에 대한 통제가능성 지각과 이점발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위기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 지각에 따라서 고통감 지각과 이점발견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위기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지각했을 때 고통감이 높을수록 이점발견 점수가 높은 반면 통제감을 지각하지 않았을 때 고통감이 높을수록 이점발견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은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 때 고통감이 클수록 위협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반면, 위협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할 때 고통감이 클수록 위협을 통해 성장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협에 대한 통제감 지각에 따라서 고통감 지각과 이점발견의 관계가 달라짐을 시사해준다.

이와 같은 시사점은 위협에 대한 단일 차원의 평가와 이점발견과의 관계를 보는데 그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한발 진전한 연구로

써 그 의미가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 규명되지 못한 고통감과 이점발견의 관계가 지각된 통제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위협에 대한 객관적인 통제가능성 지각에 따른 이점발견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통제가능한 위협과 통제불가능한 위협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강인성, 희망과 이점발견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통제가능한 위협사건과 통제불가능한 위협사건의 경험 정도와 심각성 점수에 따라서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강인성, 희망과 이점발견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련하여 통제위험 집단에서 문제중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가 높을수록 이점발견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통제위험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서 이점발견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에서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가 독립적으로 이점발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대처방식의 효과를 통제한 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들 각각과 이점발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제위험 집단에서 문제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는 이점발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정서중심 대처는 이점발견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불통제위험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이점발견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에 따라서 이점발견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2-1을 지지한다. 이 결과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나 회피중심 대처를 할수록 위험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정서중심 대처는 성장에 방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위험의 통제가능성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가 다르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Forsythe와 Compas(1987)에 따르면 문제중심 대처의 경우 통제위험에서는 적응에 효과적인 반면 불통제위험에서는 적응과 관련이 없다. 반면 정서중심 대처의 경우 통제위험에서는 적응에 효과적이지 않지만 불통제위험에서는 적응에 효과적이다. 후속 연구에서도 문제중심 대처가 위험의 통제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되었다(Endler, Speer, Johnson, & Flett, 2000). 본 연구는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뿐만 아니라 회피중심 대처의 효과도 달라짐을 밝힘으로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한편 회피중심 대처가 불통제위험 집단에 비해 통제위험 집단에서 이점발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2001)의 연구결과와 연관된다. 그는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될 때는 직접적인 문제해결이나 즉각적인 회피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적응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일시적인 스트레스의 경우 잠시 피해있으면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이 많고 스트레스에 몰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위험은 불통제위험에 비해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따라서 통제위험이

불통제위험에 비해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회피대처가 이점발견과 관련이 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의 통제가능성에 따라서 강인성과 이점발견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제위험 집단에서 통제성이나 투신성이 높을수록 이점발견 점수가 높은 반면 불통제위험 집단에서는 강인성이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2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 결과를 통해 통제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한 청소년은 문제에 대한 통제감을 갖고 문제에 몰입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을 통해 성장한 반면, 불통제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통제감을 갖고 몰입하려는 성향과 성장 간에 서로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제에 대한 통제감을 갖고 몰입하려는 성향은 불통제위험보다는 통제위험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강인성의 효과가 위험이 없는 상황보다는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크다는 선행연구(Kobasa, 1979)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즉 강인성의 효과가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도 통제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도전성이 통제성이나 투신성과 달리 통제위험 집단에서 이점발견과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즉 차주연(200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과 강인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투신성과 통제성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도전성은 관련이 없거나 역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도전적인 태도가 사회나 학교에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결

과는 도전성이 통제성과 투신성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통제성, 투신성, 도전성이 분리된 구조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Ganellen과 Balney(1984)의 연구를 지지한다.

위험의 통제가능성에 따라서 희망과 이점발견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제위험 집단과 불통제위험 집단에서는 희망이 높을수록 이점발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통제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한 청소년이나 불통제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한 청소년 모두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을 통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통제위험이나 불통제위험에 직면했을 때 희망을 가질수록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하였듯이 통제위험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강인성, 희망이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통제위험 집단에서는 희망만이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때 통제위험 집단은 통제위험을 주로 경험하고 불통제위험은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 집단이며 마찬가지로 불통제위험 집단은 불통제위험을 주로 경험하고 통제위험을 덜 경험한 집단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강인성은 통제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희망은 통제위험뿐만 아니라 불통제위험에 직면했을 때에도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통제위험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강인성의 공통점은 스트레스나 위험의 피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에서 자신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그렇다면 문제중심 대처이건 정서중심 대처이건 회피중심 대처이건 모든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나 위험의 피해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인성은 위험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성을 갖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제에 몰입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강인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통제위험에서만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통제위험의 피해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성장하지만 불통제위험의 피해를 통제하려는 노력은 성장과 상관이 없음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불통제위험에서 희망이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통제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위험의 피해를 줄이거나 대처하려는 노력보다는 위험에 직면해서 희망을 갖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변경할 수 없는 목표장애에 직면했을 때 대안적인 목표를 찾을 만큼 유연하다 (Michael, 2000; Snyder, 1999). 따라서 불통제위험에 직면했을 때 희망을 통해 위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함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상담연구 및 그 적용면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이점발견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위험의 고통감과 이점발견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위험에 대한 통제감 지각임을 확인한 것이다. 위험에 대한 고통감과 이점발견의 관계를 통제감이 조정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위험에 직면했을 때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고통스러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위험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상담이나 교육 장면에서 적용해 본다면 고통스러운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

에게 우선적으로 위기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점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 청소년이 위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특히 위험의 통제가능성에 따른 이점발견의 결정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성적의 저하와 같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에게는 적극적으로 문제에 몰입하여 대처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반면 부모의 이혼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힘든 상황을 공감해주고 어렵지만 상황을 수용하며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셋째,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불통제위험을 경험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통제위험은 우리가 사전에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제위험에 비해 그 극복이 더욱 중요하다. 연구결과 선행연구에서 주로 위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완충요인들은 주로 통제위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위험과 달리 불통제위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희망임을 확인함으로써 불통제위험을 극복하는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성숙과 관련해서 청소년 교육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청소년이 발달상 위기를 비롯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이나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교육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위험이

나 스트레스에 맞서 효과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문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 위기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태도 등의 위기대처에 관한 교육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희망은 통제위험과 불통제위험에서 성장을 일으키는바 청소년에게 희망감 고취와 관련된 교육이 필수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에서 위험상황에서 내담자의 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상담기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담자의 통제성을 높이는 상담자의 개입으로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에서 종종 사용되는 ‘점진적 과제부여’와 같은 행동적 기법을 들 수 있다. 쉽고 간단한 과제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단계적으로 과제를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위험상황에 처한 청소년 내담자에게 이러한 기법을 통해 위험에 대한 통제감을 높이도록 격려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이점발견 측정의 일반화의 문제이다. 이점발견 측정 시 과거 힘들었던 경험 중 3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사용된 이점발견 척도(PBS척도)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증된 척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점발견 척도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점발견 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이 단일 항목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존

의 이점발견 연구들은 주로 한두 가지의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통제감 지각(Evers et al., 2001, Tennen et al., 1992)과 고통감 지각(Mac Millen & Fisher, 1998; Park et al, 1996) 측정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좀 더 발전시키는 연구결과를 얻고자 선행연구의 측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동일한 위기 경험을 가진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임으로 앞으로 이점발견에서 지각된 통제감과 피해감에 대한 결과를 다양한 위기 상황에 일반화하고자 한다면 좀더 다양한 항목으로 측정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위험요인 척도와 이점발견척도의 측정에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위험요인 척도는 다양한 위험 항목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위험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점발견은 피험자가 과거 힘들었던 세 가지의 위험을 임의적으로 떠올린 후 이를 기술하고 나서 그 위험에 관해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점발견을 측정한 위험이 위험요인 척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위험이 높은 피험자들 중에 방어에 의해 이점발견 측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험이나 위기사건을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위험요인 척도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위험 경험이 적어 위험정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지만 한 두개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이점발견을 측정했을 수도 있다. 또한 불통제위험 집단으로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발견 측정은 통제위험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측정상의 문제는 연구의 제한점이다. 따라서 이점발견 측정이 위험요인의 측정에 보다 많이 일치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통제위험 집단과 통제위험 집단의 구분에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두 집단 구분이 평균값으로 이루어진 바, 불통제 위험 집단의 특징과 통제위험 집단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는 집단이라고 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위험과 불통제위험 집단을 구분할 때 사례수를 높여 평균값보다는 각 위험의 상하 30% 범위 안의 집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특정한 한두 개의 통제위험과 불통제위험의 유무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통제위험과 불통제위험 자체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통제위험 상황과 통제위험 상황 자체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이영 (2002). 상담과정 희망척도의 개발과 적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교현, 전경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97-217.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택호, 서 미, 조한익 (2005). 탄력적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의 이점발견 비교. 한국상담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2), 515-519.
- 김형선 (2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배 (1990). 관상동맥성 심장병과 성격 요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천, 김광일, Noh Samuel (2000). 한국 고등학생에 대한 스트레스상황 대처검사의 타당도 평가. *신경정신의학*, 39(1), 55-64.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 (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 81-106.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학연구*, 16(4), 189-206.
- 윤병수, 정봉교 (1999). 영대생의 스트레스 요인, 수준 및 증상에 대한 조사연구. *학생연구*, 30(1), 27-57.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윤현희, 김명자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적응감 연구. *한국노년학*, 14(1), 17-32.
-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9(1), 25-52.
- 조학래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4, 186-210.
- 조현영 (1999). 전화상담 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 지속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주관적 안녕감, 강인성, 조력신념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주연 (2002). 청소년의 강인성과 적응유연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2003). 대학생의 자각증상과 우울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3(3), 433-439.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스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대처양식의 유연성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23-143.
- Affleck, G., & Tennen, H. (1996). Construing benefits from adversity: Adaptational significance and dispositional underpinnings. *Journal of Personality*, 64, 899-922.
- Aldwin, C. M., & Revenson, T. A. (1987). Does coping hel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37-348.
- Barnum, D. D., Snyder, C. R., Rapoff, M. A., Mani, M. M., & Thompson, R. (1998). Hope and social support i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pediatric burn survivors and matched controls. *Children's Health Care*, 27, 15-30.
- Bartone, P. T., Ursano, R. J., Wright, K. M., & Ingraham, L. H. (1989). The impact of a military air disaster on the health of assistance workers: A prospective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317-328.
- Beck, A. T., Rush, J., Shaw, B.,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ischof, G. P., Stith, S. M., & Wilson, S. M. (1992). A comparison of family systems of adolescent sexual offenders and nonsexual

- offending delinquents. *Family Relations*, 41, 318-323.
- Collins, R., Taylor, S. E., & Skokan, L. A. (1990). A better world or a shattered vision? Changes in life perspectives following victimization. *Social Cognition*, 8, 263-285.
- Compas, B. E., Malcarne, V. L., & R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Dryfoos, J. G. (1990). *Adolescents at risk-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Endler, N. S., Speer, R. L., Johnson, J. M., & Flett, G. L. (2000). Controllability, coping, efficacy, and distr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245-264.
- Evers, A. W. M., Kraaimaat, F. W., Lankveld, W., Jongen, P. J. H., Jacobs, J. W. G., & Bijlsma, J. W. J. (2001). Beyond unfavourable thinking: the Illness Cognition Questionnaire for chronic diseas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1026-1036.
- Flammer, A., (1997). Developmental analysis of control beliefs. In A. Bandura(Ed.),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y*(pp.69-113). NY: Cambridge Univ. Press.
- Folkman, S. (1997). Positive psychological states and coping with severe str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5, 1207-1221.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Fontana, A., & Rosenheck, R. (1998). Psychological benefits and liabilities of traumatic exposure in the war zon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 485-505.
- Forsythe, C. J., & Compas, B. E. (1987). Interactions of cognitive appraisals of stressful events and coping: Testing the goodness of fit hypothe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473-485.
- Ganellen, R. J. & Blaney, P. H. (1984).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life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1), 156-163.
- Garm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Eds.),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pp.213-233). New York: Pergamon Press.
- Garmezy, N. (1971). Vulnerability research and issue of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101-116.
- Hull, J. G., Van Treuren, R. R., & Vimelli, S. (1987). Hardiness and health: A critique and alternativ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50, 180-192.

- Irving, L. M., Snyder, C. R., & Crowson, J. J. Jr (1998). Hope and negotiation of cancer facts by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66, 195-214.
- Janoff-Bulman, R. & Frantz, C. M. (1997). The impact of trauma on meaning: From meaninglessness world to meaningful life. In M. Power & C. R. Brewin(Eds.), *The transformation of meaning in psychological therapy: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pp.91-106). Chichester, England: Wiley.
- Kob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1-11.
- Kobasa, S. C., Maddi, S. R., & Courington, S. (1981). Personality and constitution as mediators in the stress-illness relationship.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68-378.
- Kobasa, S. C., Maddi, S. R., & Kahn, S. (1982). Hardiness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68-177.
- Kurdek L. A., & Sinclair, R. J. (1988). Adjustment of young adolescents in two-parent nuclear, stepfather, and mother- custody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1-96.
- Lazarus, R. S., & Folkman, S.(Ed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asten, A. S., & Wright, M. O. D. (1998). Cumulative risk and protection models of child maltreatment. In B. B. R. Rossman & M. S. Rosenberg(Eds.), *Multiple victimization of children: Conceptual, development, research and treatment issues*(pp.7-30). Righauton, New York: Haworth.
- Mattlin, J. A., Wathington, E., & Kellser, R. C. (199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103-122.
- McMillen, J. C., & Fisher, R. H. (1998). The Perceived Benefit Scales: Measuring perceived positive life changes after negative events. *Social Work Research*, 22, 173-187.
- Michael, S. T. (2000). Hope conquers fear: Overcoming anxiety and panic attacks. In C. R. Snyder(Ed.),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pp.355-37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O'Leary, V. E., & Ickovics, J. R. (1995). Resilience and thriving in response to challenge: An opportunity for a paradigm shift in women's health. *Women's Health: Research on Gender, Behavior, and Policy*, 1, 121-142.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 71-105.

-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 115-144.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4.
- Pruchno, R. A., & Resch, N. L. (1989). Mental health of care giving spouses: Coping as mediator, moderator, or main effects? *Psychology and Aging, 4*(4), 454-463.
- Reed, G., Taylor, S. E., & Kemeny, M. E. (1993).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gay men with AID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791-824.
- Rhodewalt, E., & Zone, J. B. (1989). Appraisal of life change, depression, and illness in hardy and nonhardy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81-88.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Vol. 3: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pp.48-7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Schaefer, J. A., & Moos, R. A. (1992). Life crises and personal growth. In B. N. Carpenter (Eds.), *Personal cop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pp.149-170), Westport, CT: Prager.
- Schimid, L. A., & Lawler, K. A. (1986). Hardiness type A behavior and the stress-illness relation in working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18-1223.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 Snyder, C. R. (1996). To hope, to lose and hope again. *Journal of Personal and Interpersonal Loss, 1*, 3-16.
- Snyder, C. R. (1998). A case for cope in pain, loss, and suffering. In J. H. Harvey, J. Omarzu, & E. Miller(Eds.), *Perspectives on loss: A source book*(pp.63-79). Washington, DC: Academic Press.
- Snyder, C. R. (1999). Hope goal blocking thoughts, and test-related anxieties. *Psychological Reports, 84*, 206-208.
- Snyder, C. R., Cheavens, J., & Michael, S. T. (1999). Hoping In C. R. Snyder(Ed.), *Coping: The psychology of what work* (pp. 205-23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Cheavens, J., & Sympton, S.C. (1997) Hope: An individual motive for social commerc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07-118.
- Snyder, C. R., Hoza, B., Pelham, W.E., Rapoff, M., Ware, L., Danovskt, M., Highverger, L., Rubinstein, H., & Stahl, K. J. (199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ldren's Hope Scal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2*, 399-421.
- Snyder, C. R., Irving, L., & Anderson, J. R. (1991). Hope and health: Measuring the will and the ways. In C. R. Snyder & E. R. Forsyth(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pp. 285-305). Elmsford, NY: Pergamon.
- Snyder, C. R., & Pulvers, K. (2001). Dr. Seuss, the coping machine, and "oh, the places

- you will go” In C. R. Snyder(Ed.), *Coping with stress: Effective people and process*(pp. 3-1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nge, T. L., & Hammontree, M. L. (1992). The effects of hardiness, police stress, and life stress on police officers: Illness and absenteeism. *Public Personnel Management*, 21 (4), 493-510.
- Taylor, S.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624-630.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 Tennen, H., Affleck, G., Urrows, S., Higgins, P., & Mendola, R. (1992). Perceiving control, construing benefits, and daily processes in rheumatoid arthriti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4, 186-203.
- Terry, D. J., Tonge, L., & Callan, V. J. (1995). Employee adjustment to stress: The role of coping resources, situational factors, and coping responses. *Anxiety, Stress & Coping An International Journal*, 8, 1-24.
- Thompson, S. (1985). Finding positive meaning in a stressful event and cop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 279-295.
- Thompson, S. C., Sobolew-Shubin, A. Galbrath, M. E., Schwankovsky, L, & Cruzen, D. (1993). Maintaining perceptions of control: Finding perceived control in low-control circumsta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43-304.
- Thorton, A. (2002). Perceiving benefits in the cancer experi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 9(2), 153-165
- Vuchinich, S., Bank, L., & Patterson, G. R. (1992). Parenting, peers and stability of antisocial behavior in pre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10-521.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s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 Wills, T. A. (1986). Stress and coping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s to substance use in urban school samples. *Health Psychology*, 5, 503-529.

원 고 접 수 일 : 2008. 9. 8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0. 6

게 재 결 정 일 : 2008. 11. 10

The Controllability of Adverse Situations and the Determinants of Benefit-Finding

Mi Seo

Han Ik Jo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benefit-finding, defined as “maturity in adverse situations”, in relation to the controllability of adverse situations.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intended to identify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t-finding and perceived pain would vary by level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of adverse situations.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t-finding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hardiness and hope would vary by level of objective controllability in relation to the adverse situations under examination here. This result indicated that perceived controllability of the adverse situations mod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in and benefit-finding. Second, in objectively controllable adverse situations, problem-focused strategies, avoidance-focused strategies, control and hardiness and hope are positively correlated to benefit-finding. However, in objectively uncontrollable adverse situations, only the hope variable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benefit-finding.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in the counseling fields by providing greater understanding of how to help adolescents overcome adverse situations

Key words : *benefit-finding, adolescent, hardiness, hope, coping strategies, adverse situations(controllability, uncontrollability)*